



파란 하늘 아래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차츰차츰 물들어가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 좋은 가을입니다.
대지의 생명들이 결실을 맺는 계절이기도 하죠.
맺을 결(結), 열매 실(實) 두 한자가 합쳐진 단어 결실은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짐'을 뜻하기도 하죠.
결실의 계절인 가을 <KPS STORY>와 함께
올 한 해를 잘 맺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

K P S M A G A Z I N E KPS STORY

451번째 만남

2024년 9월과 10월





PROLOGUE

째깍째깍, 부지런한 초침이 달려 가을이 왔습니다.
겨우내 추운 땅속에서 웅크리던 씨앗이
이른 봄부터 자라 흑한의 여름을 견디고
파란 하늘 아래 열매의 결실을 맺는 계절.
모든 생명이 지나온 수고로움을 알기에
가을이 오면 어쩐지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KPS STORY> 9+10월호에서는
차곡차곡 쌓아 온 시간으로 이룩한 아름다운 결실과
빛나는 성과에 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K P S M A G A Z I N E

KPS STORY

2024. September+October
Vol. 451

발행인 김홍연
편집인 정영우
발행처 한전KPS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11
전화 061-345-0114
팩스 061-345-0115
기획·디자인 경성문화사(02-786-2999)
기획·편집·진행 김정필, 한장봉, 김영권, 김누리

한전KPS 웹진은 www.kps.co.kr 또는
아래 QR코드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04
CEO Letter
결실의 계절,
지속 성장의 기틀을 다잡시다!

06
Special Essay
남다른 성과를 만드는
1%의 비밀

10
KPS Inside
동반성장과 상생의
의미를 되짚어 보다

14
KPS 양케이트
능력 향상 레벨 업!

함께 나누기

16
축하합니다
영웅의 귀환
2024 파리패럴림픽 보치아 종목
메달리스트 강선희 선수

20
현장에서 만나요
최적의 인프라로 최고의 인재를 키운다
인재개발원

24
KPS 클래스
나도 이제 한전KPS인!
신입사원으로 첫발을 내딛다

생각 더하기

28
큐스톤
원자력 발전의 안전을 책임지다

32
트렌드 인사이드
꼭 필요한 것만 삽니다
새롭게 등장한 요노YONO 경제

36
큐스 밸런스
알쏭달쏭?
큐스의 선택은!

38
여행 탐방
결실과 풍요의 계절
한껏 무르익은 가을의 낭만을 따라서

42
KPS NEWS

46
독자 참여

결실의 계절, 지속 성장의 기틀을 다잡시다!

한전KPS 가족 여러분!

가을이 짙게 무르익어 가면서 한 해 동안 쏟은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지난여름 뜨거운 햇살을 견뎌낸 오곡과 과실이 그 결실을 드러내듯, 여러분이 흘린 땀과 열정이 이제 중요한 성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큰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높은 뜻을 가져야 하며, 더 넓은 성과를 위해서는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는 ‘공송유지, 업광유근(功崇惟志, 業廣惟勤)’이라는 말처럼 올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한전KPS 임직원 여러분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바로 한전KPS의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임을 항상 가슴속에 새기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는 원전 수출 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체코 원전 프로젝트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원자력 발전소 정비와 유지보수 분야에서 우리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성과입니다.



앞으로 ‘팀 코리아’의 계약 등 시운전 및 정비분야 준비와 협상, 사업추진 준비 등에 동참해 내년 3월 계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폴란드, 영국, 카자흐스탄 등 추가적인 신규 해외원전 사업 수주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정부의 원전 10기 수출달성에 전사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해외 정비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 기존의 원자력과 화력 발전 설비 외에도 LNG 복합설비 정비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했습니다. 특히 LNG 복합설비는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인 만큼 앞으로 한전KPS의 사업 영역 확장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또한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 설비정비에 대한 기회를 꾸준히 모색해 탄소중립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앞으로 우리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 확실하므로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기회를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올해 이룩한 성과들은 내년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경영평가는 한전KPS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자리로 일등 공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특히 평가의 주요 지표인 재무 성과관리를 위해 우리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통해 재무 상태를 개선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가 절감과 자산 효율화를 통해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익성을 높였고, 이는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국민과 정부의 기대에 부응하는 이러한 성과는 우리가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부의 긴밀한 소통과 현장 중심의 안전 경영이 우리의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각 부서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현장 안전 관리는 우리의 모든 작업과 활동에 있어 최우선 과제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이 곧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만큼, 철저한 안전 절차 준수와 사전 예방 조치를 통해 무사고·무결점 정비를 실현해야 합니다.

한전KPS 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두 더 큰 도전과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실은 씨앗을 품고 있다’는 말처럼 우리가 이룩한 성과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전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한전KPS의 모든 임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목표를 이루고 그 결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내외 모든 사업소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랍니다. 특히 OH 등 각종 공사가 본격적으로 집중됨에 따라 사업본부장을 중심으로 철저한 현장 안전경영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일교차에 한전KPS 가족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하고 일과 삶의 균형 속에 행복이 가득한 가을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사 장 김 현 연

Pro
duce

Re
sult

남다른 성과를 만드는 1%의 비밀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경쟁에서는 아주 근소한 차이가 승패를 가르는 열쇠가 된다. 즉 남들과 다른 1%가 결실과 성과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차별성을 갖춰야 할까. 목표를 뛰어넘어 성공으로 도달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 알아본다.

글. 한수빈

참고도서. 박용호 <관점을 디자인하라>, 조나 버거 <보이지 않는 영향력>, 제임스 클리어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익숙함에 특별함 한 스푼

최근 외식업계에는 ‘뉴사이클(Newcycle) 마케팅’이 대세다. 새로움을 뜻하는 New와 재탄생을 뜻하는 Upcycle의 합성어로, 기존 제품에 새로움을 더해 이색 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뜻한다. 세대를 거쳐 사랑받아 온 오리온 초코파이는 출시 50년 만에 처음으로 케이크 속에 마시멜로 대신 크림을 넣은 ‘초코파이 하우스’ 2종을 선보였다. 익숙한 초코파이에 새로운 식감과 맛을 더한 제품은 출시 20일 만에 누적 판매량 450만 개를 돌파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1981년 처음 선보인 해태제과의 홈런볼은 기존 초코 크림맛 대신 마롱크림 맛, 피스타치오 맛을 잇달아 출시했다. 1983년 선보인 롯데웰푸드의 뽀빠로는 남해유자, 해남녹차, 블루베리 요거트 등 새로운 맛을 계속 추가하는 중이다. 이렇듯 뉴사이클 마케팅이 주목받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익숙함을 선호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참신함에서 매력을 느끼기 때문이다.

펜실베이니아 대학 와튼스쿨의 마케팅학 교수인 조나 버거는 ‘애착 이론’을 제시한다. 자주 보고 익숙해지면 자연스레 애정이 생겨난다는 것인데,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연구 결과 기존 모델과 비슷한 디자인이 판매량이 더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 너무 새로운 것보다는 적당히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요소를 가미한 것이 차별성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수세미 하나로 미국 청소용품 시장의 강자로 자리 잡은 스크럽 대디. 그저 평범했던 스펀지를 스마일 표정으로 만들고, 눈과 입에 구멍을 뚫었다. 눈에는 손가락을 넣어 컵처럼 깊은 곳을 세척하도록 했고, 입 모양에는 손가락이나 주걱 같은 조리도구를 넣어 깨끗이 씻어낼 수 있게 했다. 여기에 따뜻한 물에서는 부드럽고 차가운 물에서는 딱딱해지는 성질을 이용해 물 온도로 주방용품을 더욱 깔끔하게 씻을 수 있게 만들었다. 결과는 그야말로 대박이었다. 미국 주방에 없어서는 안 될 아이템으로 자리 잡더니, 연 매출 3,300억 원을 기록하며 국민 청소용품 브랜드로 성장했다. 이처럼 한끗 차이의 참신한 요소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 익숙함에 매몰되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새로운 무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때다.



관점을 바꾸면 새로움이 보인다

우리는 개인의 크리에이티브가 전략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렇다고 창의성을 단순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라 단정 짓기는 어렵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 상상과 창조 활동은 만들어진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미 수많은 창작물에 의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바로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는 훈련이다. 세상을 바꾼 0.1% 천재들의 업적은 관점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는 모든 틀에서 완벽하게 비껴나 있는 인물이다. 캔버스 대신 세계 곳곳의 거리와 담벼락, 지하도 등에 그래피티 작품을 남기며 대중의 시선을 끈 것을 시작으로 전쟁과 자본주의 비판 등의 사회적 메시지를 담으며 평화 반던 그래피티를 공공예술로 끌어올렸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인 <풍선과 소녀>는 영국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낙찰과 동시에 파쇄되며 더욱 유명세를 탔다. 현대 미술 시장의 거래 관행을 조롱한다는 의미를 담았는데, 뱅크시는 자신의 SNS를 통해 ‘파괴의 욕구는 곧 창조의 욕구’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1980년 설립된 일본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무인양품 역시 통념을 탈피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름 속의 ‘무인(無印)’은 브랜드가 없다는 뜻으로 제품 어디에서도 브랜드 로고는 찾아볼 수 없다. 디자인 요소를 최대한 비워낸 덕분에 튀지 않고 유행을 타지 않아 어디에나 어울린다. 심지어 마케팅도 하지 않는다. ‘노 로고, 노 디자인, 노 마케팅’ 대신 양품(良品)에 집중하는 것이 그들의 철학이기 때문이다. 차별화되지 않은 디자인은 역으로 그들의 차별점이 되었다. 덕분에 경제 호황 가도를 달리던 일본 경제가 붕괴하며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경제 위기 속에서도 무인양품은 매출 440% 증가, 경상이익 1만 700% 증가를 달성했다. 일반적인 당연함을 거부하는 것,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는 것, 관찰자의 입장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생각의 각도를 1%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성과 알고리즘 도서



성과를 반복할 수 있는 비법, 복기

복기는 바둑에서 한 판을 두고 난 다음 다시 처음부터 그대로 두며 수를 돌아보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묘수와 문제수, 승부수를 발견하고 검토하며 다른 수는 없었는지 반성하기도 한다. 복기에는 ‘회고’, ‘반성’, ‘탐구’, ‘향상’이라는 4단계가 있으며 마지막 단계인 ‘향상’은 복기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복기의 중요성은 비단 바둑뿐만이 아니다.

야구 역사를 새로 쓴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는 아이패드에서 훈련 내용과 생각을 매일 일기처럼 기록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경기 성적이 좋았던 날도, 나빴던 날도 모든 내용을 글로 남기며 좋을 때는 어떤 느낌으로 했는지, 나쁠 때는 무엇이 원인이었는지 기억을 더듬다 보면 답이 보인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행동이 당장의 시즌뿐 아니라 다음 시즌을 위한 힌트가 되기도 한다고 말한다. 복기는 조직의 성공을 좌우하는 근간이 되기도 한다.

1986년, LA 레이커스는 역사상 가장 재능 있는 농구팀이었지만 플레이오프 탈락 후 NBA 챔피언십에서 뛰지 못했다. 이에 수석 코치였던 팻 라일리는 선수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CBE(Career Best Effort)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선수마다 적절한 기량을 찾고, 이를 토대로 적재적소에 선수를 배치했다. 이후에는 각 선수에게 한 시즌 동안 1%의 향상된 결과를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8개월 후 LA 레이커스는 NBA 챔피언 팀이 되었다. CBE 프로그램의 핵심은 숙고와 복기에 있었다. 이미 선수 개개인은 훌륭한 기량을 갖추고 있었다. 그럼에도 한 번 더 분석하고 체크해가진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처럼 복기는 모든 습관에서 장기적 증진을 돕는다. 실수를 깨닫게 해주며 실력을 향상시키는 경로를 알려주어 성과에 도달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되어주는 것이다. 남다른 성과를 얻기까지 대단하거나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조건이라면 남들과는 다른 1%의 차이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법이다. 미세하지만 매일 반복하는 변화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동반성장과 상생의 의미를 되짚어 보다

우리 회사 내부평가 기준과 경영평가 보고서를 넘기다 보면 곳곳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 2개가 있다. 동반성장 그리고 상생. 우리 회사가 공기업으로서 ‘함께 나눈다’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하지만 이 단어를 막상 처음 접하게 되면, 회사 내부의 직원으로서 문득 들게 되는 의문이 있다. ‘시장에서의 경쟁은 우리 회사도 예외가 아닌데 왜 우리가 나누어야 하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동반성장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글: 경영혁신처 ESG혁신부 구희성 차장

동반성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

동반성장을 사전에서 살펴보면 규모 차이가 있는 대상끼리 상생과 협력을 통해 ‘더불어 성장’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 없는 사람에게 주자는 것이 아니라 역할과 장점이 다른 주체가 상호 협력을 통해 산업 전체의 파이를 크게 만드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 협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공기업(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그리고 모두 성장하기 위한 개념이 동반성장인 것이다.

이렇듯 동반성장에 대한 정의가 일견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지만 MBTI가 F보다 T에 가까운 사람이거나, 삼국지에서 유비보다 조조의 리더십이 공감가는 사람이라면 동반성장이 쫓는 이상적인 가치와 자본주의 시장의 냉정한 현실이 자연스럽게 매칭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동반성장이 중요한, 보다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 정부와 민간기업의 협업을 약속한 대중소 상생형스마트공장 상생협약식 개최



“

협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공기업(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그리고
모두 성장하기 위한 개념이 동반성장인 것이다.

”



△ 2024년 중소기업 품질보증교육으로 동반성장 주도

먼저 우리 산업의 구조적 특성이 첫 번째 이유다. 우리나라 산업을 이루는 기업들 중 중소기업의 비중은 얼마나 될까. 중소기업부가 작년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비중은 무려 99.9%를 차지한다.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의 수도 전체 기업 종사자의 81%에 해당한다.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자본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산업 전체가 휘청거린다는 것이 호들갑이 아닌 이유다.

좀 더 직접적이고 단순한 이유도 있다. 바로 국내 법률에 의해 동반성장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2006년에 제정된 바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법으로서 중소기업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 회사가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가치 하에 중소기업 지원 추진계획을 세우고 경영평가와 동반성장평가를 통해 정부로부터 그 추진 성과를 평가받는 과정들이 모두 이 법령에 토대를 둔 과정인 것이다.

동반성장 우수 등급 최초 달성이라는 성과

우리 회사는 2024년 4월에 발표한 2023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기관 최초로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우수등급은 5개 등급 중 상위 2번째 등급에 해당하며, 전년도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성과와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등의 노력 등을 특히 높게 평가받았다. 우리 회사의 업 토대이기도 한 원전 정비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원자력 업계의 잠재성 있는 창업벤처기업 10개사를 발굴 및 지원하거나, 중소기업들의 145억 원 해외매출에 기여하고 85명의 해외일자리도 창출하였다. 자격평가 제도 시행으로 316명의 정비인력 역량개발에 도움을 주고 원전 정비사업 발주금액도 전년 대비 30% 가까이 증가하는 등 원전 정비산업계의 동반성장에 특히 주력한 바 있다.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를 분류해 맞춤형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창업단계에 있는 기업들에게는 시제품 설계와 인증·특허 취득, 투자유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였다.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들에게는 우리 회사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술성장 동력을 제공했다. 총 28개 기업의 스마트 설비 구축, 혁신과제 달성, 산업혁신을 지원했고 이를 통한 중소기업들의 재무성과는 약 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전해체 장비, 감전방지 접지용구 등 중소기업의 기술제품을 현장에서 실증해 주는 테스트 베드도 시행했다. 끝으로 안정단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판로확대 및 기술안정화를 지원했다. 우리 회사의 전체 구매 실적 중 90%에 해당하는 3,810억 원이 중소기업 제품이다. 또한 기술이전 55건, 기술임치 및 보호 32건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튼튼하게 지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모두 전 사업소와 유관부서가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이다.

동반성장평가 | 동반성장위원회
2007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중기부 산하의 동반성장위원회가 공공기관들의 동반성장 가치달성을 위한 한 해 동안의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최우수-우수-양호-보통-개선 5개 등급으로 나뉜다.

중소기업 지원, 기술마켓을 결들인



유명 요리 대결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셰프가 발언한 “제목은 닭 날개 조림으로 하겠습니다. 바질을 곁들인...”이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 그냥 닭 날개 조림이 아니라 바질이 해당 요리의 포인트라는 것을 더없이 잘 표현한 발언이다. 중소기업 지원에서도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했다. ‘중소기업 지원’에 ‘기술마켓’을 곁들인 것이다. 기술마켓은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우수한(특허, 실용신안, 기술개발 등) 중소기업들과 이 제도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107개사가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일종의 온라인 만남의 광장이다. 전력그룹사들은 물론이고 도로공사와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알만한 공공기관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검증된 제품과 기업을 찾고 조회하고 싶을 때,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제품을 활용하고자 하는지 검색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공공시장 진출을 위해 공공기관들이 기술마켓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올해 정부 경영평가 기준에도 기술마켓 활용실적이 신설되었다. 위해 우리 회사도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 및 제품구매에 있어 기술마켓과의 연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모두의 노력이 깃든 동반성장

동반성장평가와 경영평가를 준비하기 위해 한 해 실적을 취합하다 보면 동반성장이라는 주제가 특히 우리 회사 곳곳의 크고 작은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사업소에서 여는 간담회 한두 번이 모여서 중소기업과의 수십 번의 소통 실적이 되고, 총무팀과 기술팀에서 사업소 살림과 공사 수행을 위해 구입하는 물품들은 중소기업 구매 실적이 된다. 하나하나 따로 보면 소소해 보여도 모아 놓고 보면 큰 성과가 된다. 동반성장은 이렇듯 우리 회사 직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보인 정성과 노력이 담긴 산물이다. 앞으로도 우리 회사는 발전 정비 업계를 선도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더 나아가 국가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이바지한다는 사명감으로 상생의 가치를 실현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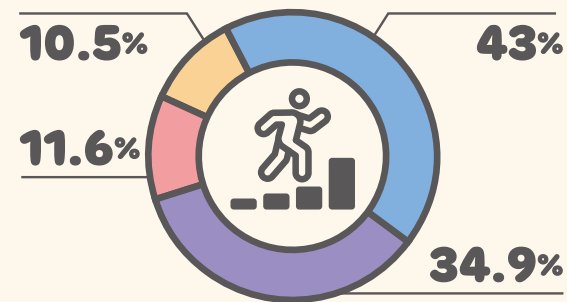
능력 항상 레벨 업!

능력을 향상시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개인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더불어 직원의 성장은 회사의 지속 경영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본격적인 하반기인 지금, 한전KPS인이 생각하는 성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만나본다.

정리.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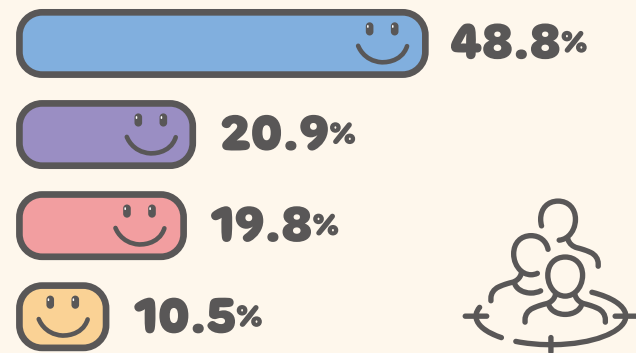


Q1. 스스로 성장했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 1 A에서 B로, B에서 C로~ 업무 진행 상황이 척하고 그려질 때 43%
- 2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도움 요청 없이 업무 마쳤을 때 34.9%
- 3 그땐 그랬지. 귀엽보짝 신입 사원에게 업무 알려줄 때 11.6%
- 4 질문 폭격기 중단 사수에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도 될 때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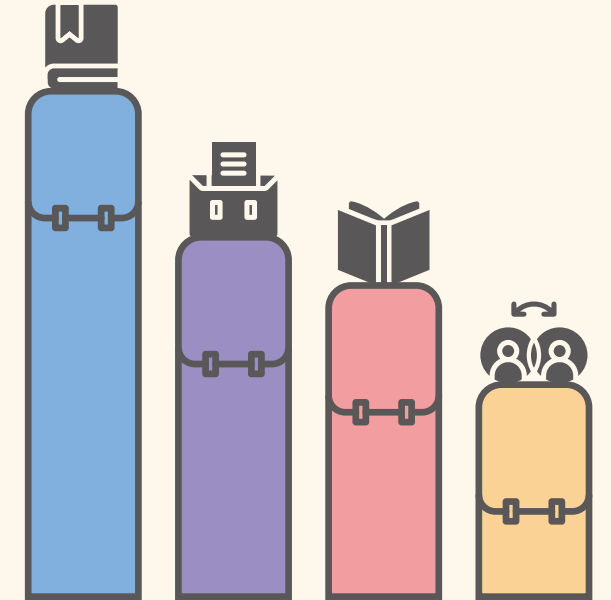
Q2. 닳고 싶은 완성형 직장인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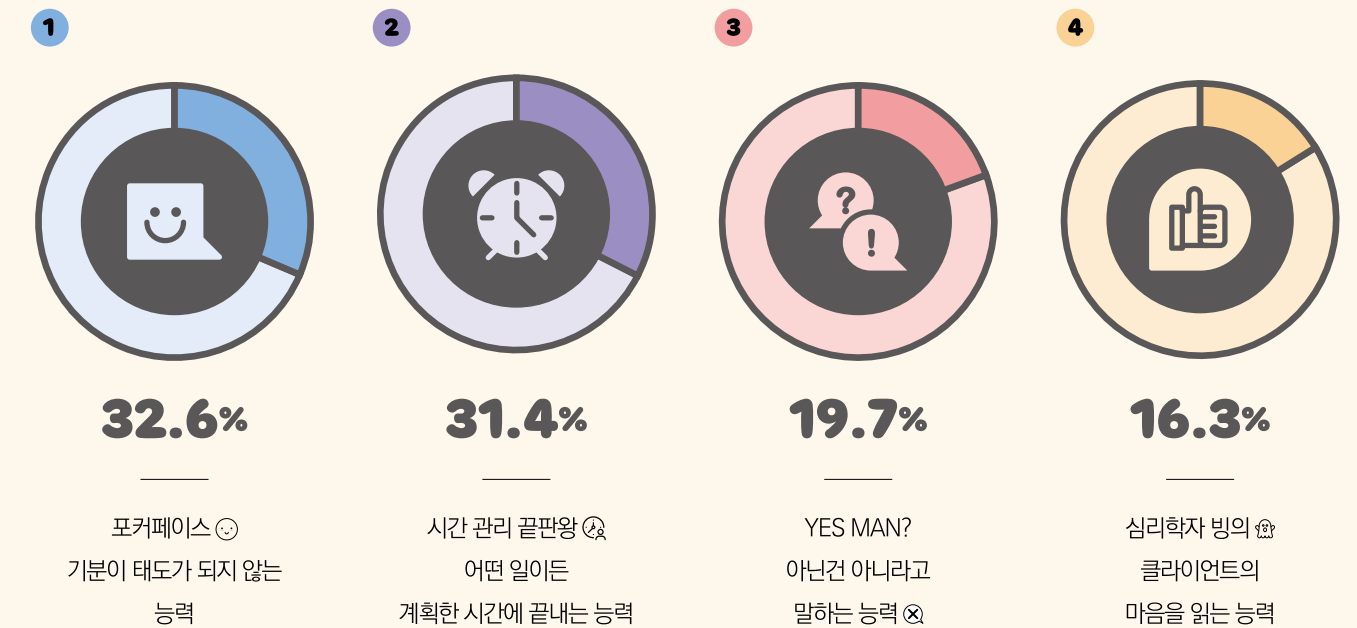
- 1 열린 업무도 매끄럽게 진행하는 업무 교통 정리사 48.8%
- 2 얼어붙은 분위기도 녹이는 위트 센스 만렙 분위기 메이커 20.9%
- 3 주어진 업무 척척 해내고 정시 퇴근하는 능력자 19.8%
- 4 정년퇴임하는 모든 선배님들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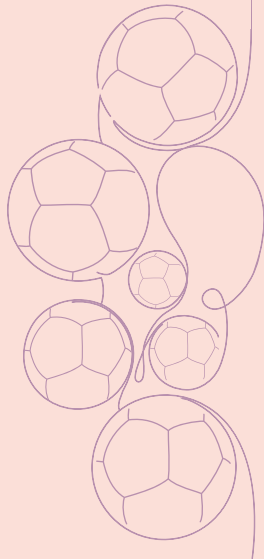
Q3.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성과는 어떤 것인가요?

- 1 배움은 다다익선 자격증 취득 36.5%
- 2 주어진 업무를 척척 업무적 레벨업 25.9%
- 3 대화가 가장 쉬웠어요. 외국어 습득 22.4%
- 4 팀이 평안해야 회사를 다스린다! 동료와의 유대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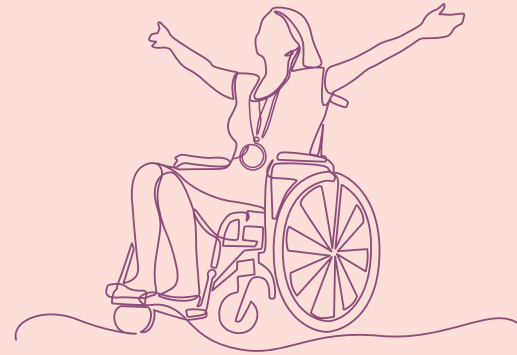
Q4. 성공하는 직장인이 되기 위해 장착하고 싶은 능력은 어떤 것인가요?





영웅의 귀환

2024 파리패럴림픽 보치아 종목
메달리스트 — 강선희 선수



올림픽은 꿈의 무대다. 전 세계에서 모인 선수들이 꿈을 향해 질주하는 뜨거운 축제의 현장. '2024 파리패럴림픽'에서 누구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낸 강선희 선수가, 땀과 노력이 담긴 메달을 목에 걸고 한전KPS 본사를 찾았다. "한전KPS 임직원들의 응원이 있어 멋진 경기를 펼칠 수 있었다"는 강선희 선수. 영웅의 멋진 귀환이다.

글. 박향아 사진. 조병우

파리패럴림픽의 영웅을 만나다

10월 2일 오후, 한전KPS 본사에서 '2024 파리패럴림픽 보치아 종목에서 은메달(혼성 페어)과 동메달(여자 단식)을 획득한 강선희 선수를 위한 환영식 및 격려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한전KPS 김홍연 사장과 경영관리본부 조영래 부사장, 박철승 인사혁신처장,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회 김현성 사무처장, 광주광역시의회 김용임 의원 등이 멋진 승부를 펼친 강선희 선수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

파리패럴림픽에 참가하기까지 흘린 강선희 선수의 땀과 노력, 패럴림픽에서의 감동적인 경기 장면을 다시 보는 것으로 행사가 시작됐다. 혼합 페어 결승전에서 이쉽게 금메달을 놓쳤지만, 상대 선수를 향해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내는 모습, 여자 단식 동메달 결정전에서 승리를 확정 짓고 크게 환호하는 강선희 선수의 모습은 몇 번을 봐도 짜릿하고 감동적이다.

이후 진행된 전달식에서는 2024 파리패럴림픽에서 대한민국과 한전KPS의 이름을 널리 알린 강선희 선수에게 격려금과 지원 물품 등을 전달했다.

한전KPS 김홍연 사장은 축사를 통해 "패럴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대회가 아니라, 인내와 용기,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는 축제이며 그 중심에 강선희 선수가 있음을 한전KPS 임직원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강선희 선수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오늘 전달하는 격려금은 강선희 선수가 그동안 흘린 땀방울과 성취를 인정하고, 앞으로의 여정에 힘을 보태기 위한 작은 마음"이라고 밝히며, "강선희 선수가 쏟은 열정과 노력의 결과는 단순히 개인의 성취를 넘어, 우리 사회가 장애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강선희 선수와 한전KPS의 아름다운 동행

강선희 선수에게 패럴림픽은 오랜 꿈이었다. 보치아 운동을 시작하고 8년 동안 ‘국가대표’가 되어 올림픽에 참가하는 순간을 꿈꿔왔고,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참가한 생애 첫 올림픽은 매 순간이 감동이었다. 시상대 위에서 애국가를 듣지 못한 것은 못내 아쉽지만,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다.

“패럴림픽을 준비하며 정말 철저히 훈련했습니다. 기술, 전략, 체력을 모두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멘탈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저 스스로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난해부터 한전KPS 소속으로 뛰게 된 것도, 강선희 선수에게는 큰 전환점이 됐다. 보치아를 시작한 후부터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인 강 선수에게 여러 실업팀에서 이적 제의를 했었다. 국내 랭킹 2, 3, 4위 선수가 모두 실업팀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경기를 뛸 때도, 랭킹 1위인 강 선수는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지역의 실업팀에서 뛰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지만, ‘나도 어딘가에 소속되어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하고 싶다’는 갈망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그때 한전KPS의 감사한 제안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고, 이는 제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급여와 소속감을 통해 경제적 걱정 없이 훈련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든든한 서포터’가 있다는 사실은 심리적인 안정감도 주었습니다. 패럴림픽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중요한 힘이 된 것은 물론이고요. 오늘도 본사에 들어오자마자, LED 전광판에 걸린 제 사진과 환영 인사말을 봤는데요. ‘이분들이 패럴림픽 때도 나를 응원해 주셨구나’하는 생각에 감동과 감사가 교차했습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속도와 화려함으로 승부하는 다른 스포츠와 달리, 보치아는 뛰어난 전략과 집중력으로 신중하게 공을 굴려야 하는 스포츠다. 공을 던질 목표를 설정하고 의도한 방향으로 공이 정확히 도달했을 때의 희열과 성취감. 강선희 선수가 8년째 보치아와 동행하는 이유다.

“사고 후 신체 활동을 위해 생활체육으로 탁구를 시작했어요. 동료 선수들이 패럴림픽에서 멋진 승부를 펼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스포츠로 큰 무대에 서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으로 선택할 수 있는 스포츠는 많지 않았죠. 그러던 중 사회복지사 현장 실습을 위해 방문한 장애인 자립센터에서 보치아를 처음 접했습니다. 뛰어난 전략과 전술을 세울 수 있다면, 보조 선수와 함께 얼마든지 도전 해볼 수 있겠다 싶었어요.” 스포츠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강선희 선수. 그렇게 보치아는 강 선수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주었고, ‘국가대표가 되어 국위를 선양하고 싶다’는 꿈도 갖게 됐다. ‘국가대표’가 되어 꿈을 이루기까지 걸린 8년의 세월. 그 시간이 늘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했던 국가대표 선발전은 좌절과 도전의 무한한 반복이었다. 특히 서로의 호흡이 중요한 경기 보조 선수가 바뀌었을 때는 ‘꿈을 향한 여정을 멈춰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만큼 힘들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남편이 보조 선수로 함께했지만, 첫 국제 대회를 3일 앞두고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겨 경기에 불참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함께 훈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보치아를 그만둘까 고민했지만, 그동안 쏟은 노력과 병상에서 회복 중인 남편을 위해 국가대표가 꼭 돼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후 이번 패럴림픽에서 함께한 박세열 선수를 만나 함께 훈련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주변의 따뜻한 지지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패럴림픽 국가대표’라는 첫 번째 목표를 멋지게 완수한 강선희 선수는 이미 다음 목표를 향한 레이스를 시작했다. 휠체어 위에서 훈련하며 보낸 무수히 많은 시간, 그 시간을 함께 버텨준 소중한 동료, 그리고 묵묵히 믿고 응원 해준 소중한 가족과 많은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낸 패럴림픽 메달임을 알기에, 기쁨만큼 책임감도 크다.

“앞으로의 목표는 다음 패럴림픽에서 더 높은 성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특히 금메달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더욱 철저히 준비할 계획입니다. 계획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에 여러분의 격려와 믿음이 큰 힘과 원동력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ini Interview



박세열 경기보조 선수

헬스트레이너를 꿈꾸던 학생 시절, 선히 누나가 “졸업하고 나랑 같이 보치아 안 할래?”라는 제안을 했죠. 오랜 고민 끝에 승낙했고, 이후로 6년 동안 최고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저는 물론이고 누나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이번 패럴림픽이 누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무대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누나의 실력을 믿었기에, 경기 전 “누나가 최고야”라는 말로 자신감을 심어주었죠. 금메달을 놓친 것은 아쉽지만, 이번 패럴림픽에서 누구보다 멋진 승부를 펼쳤다고 생각해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누나의 손과 발이 되어 함께 뛰면서,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최적의 인프라로 최고의 인재를 키운다

인재개발원

신입사원 입문 교육부터 은퇴를 앞둔 이들의 아웃플레이스먼트 교육까지 한전KPS인이라면 성장의 단계마다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곳이다. 전력설비 정비 현장을 그대로 재현한 최적의 교육 인프라와 체계적인 인재육성 시스템을 통해 글로벌 넘버원 전력설비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사계절 수려한 나주호를 배경으로 마음과 정신까지 새롭게 움트는 인재개발원을 찾았다.

글. 곽한나 사진. 임태현



2000년 공기업 최초, 국가공인 사내자격제도 시행

한전KPS 인재개발원은 사내자격제도를 처음 시행한 곳으로 유명하다. 1991년부터 사내자격을 부여하기 시작해 2000년 4월, 공기업 최초로 국가공인을 받아 사내자격제도를 고도화해 왔다. 국가공인 사내자격제도 시행의 결실은 놀라웠다. 전 직원의 정비 품질이 향상된 것은 물론이고, 자기 계발 의지를 북돋우며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이끌었다. 사내자격은 직무 및 교육 훈련과 유기적으로 연계돼 전문직과 현장기술직, 관리직 전반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인재개발원은 2022년 고용노동부 주관 사내자격검정대회 대상을 차지했고,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사내자격 우수운영기관으로 인정받아 우수사례집에 소개되기도 했다.

얼마 전, 인재개발원에 또 한 번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다. 2024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으로 선정된 것.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Best HRD 인증은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모범 기준을 달성한 우수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연속으로 인증을 유지한 이후, 새롭게 선정된 터라 그 의미를 더했다.



2024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Best HRD)으로 선정

올해 4월 개방형 직위로 임명된 류종남 인재개발원장은 인재는 우리 회사의 '핵심 원동력'이자,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한다.

“한전KPS 인재개발원에서는 1년 365일 전력설비 정비산업 분야 인재들이 최고의 기술력을 익히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도전과 결실을 맺는 현장에서 함께 할 수 있음에 무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글로벌 100년 기업을 향하여 최고의 기술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인재개발원의 노력은 안팎으로 다부지다. 인재개발원이 진행하는 'KPS-패러데이 스쿨'은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이 차세대 우수 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다. KPS-패러데이 스쿨을 통해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고,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을 수상했다.

훈련을 실천처럼!

현장 중심의 특화된 교육 현장

인재개발원은 교육기획실, 리더십센터, 안전총무부, 화력센터 네 부서가 주축을 이룬다. 화력센터는 전력설비 정비에 관한 한 자타공인 국내 최고의 종합실습장으로 꼽힌다. 기계, 전기, 송전, 계측에 이르기까지 이론과 실습을 넘나들며 실전에 버금가는 훈련을 받을 수 있다. 특히 32m 높이의 송전실습용 철탑은 국내에서 유일하다. 표준화력 BFP펌프 등 264종의 훈련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오픈형 기계실습실에서는 실제 설비들을 직접 분해하고 조립하며 정비 분야에 특화된 교육이 이뤄진다.

“신입사원 기초지식 습득 과정부터 실무진 역량 강화과정, 전문 심화 과정까지 화력센터 연간 교육과정은 190여 개에 이릅니다. 인재개발원 연간 교육 수용 인원을 시간적 측면으로 산정해 보면,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1만 8,000여 명 정도가 교육을 받는 셈입니다.”



이구상 화력센터 센터장은 발전기 전동기 분야 정비 기술 교육을 직접 강의하고 있다. 그가 교육과정을 막론하고 교육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안전'이다.

“정비를 수행하는 데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안전'입니다. 실무 능력 향상이 중요하지만, 이는 현장에서 시간과 경험을 쌓으며 얻어지는 부분이 큼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모든 교육 과정에서 기본 안전 수칙을 제대로 익히고, 현장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기계 상태와 감시, 진단 교육을 담당한 한경훈 교수는 교육생들에게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기계 발열 여부를 분석하는 방법을 꼼꼼히 전했다.

“최첨단 기술과 기법을 통해 설비의 이상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뮬레이터 등을 통해 측정 실습을 진행하고, 분석 실습을 통해 발생한 여러 현상을 해석하며, 담당 부서에 진단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과정까지 실천 그대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한전KPS의 고급 기술인력이 주관하는 현장 OJT 훈련을 강화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

학습자 주도형 최신 트렌드 반영한 새로운 학습 플랫폼 열 것

인재개발원은 학습자 주도형으로 변화하는 HRD 최신 트렌드에 따라 누구나 학습 콘텐츠를 만들어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새로운 학습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숙련된 기술력의 효율적인 전수를 위한 자발적 학습 방식을 도입할 것입니다. 학습 동아리, 코칭, 멘토링 등 다양한 학습조직 운영을 지원할 것이며, 우수 학습활동에 대한 마일리지 추가 제공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류종남 인재개발원장은 기존의 정례화된 교육 방식을 탈피해 수요자 중심, 현장 중심의 교육 방식을 확대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온라인 교육의 트렌드인 '마이크로 러닝(3~5분 정도의 짧은 단위 콘텐츠)' 등 에듀테크 운영을 활성화하고, OH 현장 설비 특성과 보유 장비를 활용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유설비 종합집단을 통한 노후 설비 교체와 더불어 숙소동, 실습동 증축 기본계획 등 교육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한전KPS 인재개발원이 발전플랜트 솔루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최고의 성장 아카데미로서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전력설비 정비 전문 공기업으로서 사내자격제도 등 혁신적인 교육 문화를 이끌어 온 인재개발원의 다음 행보가 기대를 모은다.



Mini Interview



류 종 남 원장

Q. 앞으로의 운영 방향과 계획에 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연차(5년 미만) 인력 증가에 따른 정비 숙련도 저하가 중장기적인 위험 요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은 현장 기술력 약화에 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부터 실무, 전문 심화 과정에 이르는 교육훈련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개인 성장과 워라벨, 다양성의 가치를 중시하는 MZ세대 성향에 맞춰 새롭고 혁신적인 동기 부여 방식을 도출하고 마인드셋 교육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한전KPS 사업소 구성원 모두가 자기 성장과 교육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온라인 학습플랫폼을 활성화하고, 현장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 남 일 위원장

Q. 인재개발원을 이끄는 구성원들을 향한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수원 교육부터 시설관리, 회계, 구내식당 운영에 이르기까지 인재개발원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현장에서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간 평균 250여 개의 교육과정을 진행하다 보니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쉬지 못할 때가 있어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사람과 기술이 희망이다'라는 인재개발원 캐치프레이즈를 마음에 새기며 우리 구성원 모두가 희망임을 전하고 싶습니다. 신입부터 은퇴자에 이르기까지 자기 계발과 성장을 위해 인재개발원을 찾는 모든 분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으며 힐링까지 할 수 있도록 최적의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도 이제 한전KPS인!
신입사원으로 첫발을 내딛다



한전KPS 인재개발원이 젊음과 배움의 열기로 가득 찼다. 2024년 상반기 신입사원 210명이 신입입문과정 교육에 참가하기 위해 모였다.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7박 8일간의 신입입문과정에서는 회사를 이해하고, 신입사원 기본 소양을 익히며, 팀 프로젝트를 통해 협업하는 다채로운 시간들이 채워졌다. 어색함도 잠시, 시나브로 피어나는 동료애를 느끼며 그렇게 한전KPS인이 된다.

글. 곽한나 사진. 임태현



한전KPS 역사부터 Chat GPT 활용 분석까지

신입사원 교육훈련은 크게 3단계로 나뉜다. 1단계 신입입문과정을 마치면 2단계 기본직무과정이 진행된다. 신입사원의 배치 발령 후, 1년 이내에 발전계통교육을 받아야 하고 멘토링 프로그램인 S-OJT 과정도 거쳐야 한다. 한전KPS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1년에 걸친 대장정인 것이다. 일련의 교육과정은 인재개발원의 교육기획실, 화력센터, 리더십센터와 전국 각지의 사업소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2024년 상반기 신입사원은 사무, 기계, 전기, 용접 등 4직급 163명과 송전, 홍보, 보건, 일반행정, 조리원 등 47명을 포함해 총 210명이 선발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 인원이다. 신입입문과정은 7박 8일간 사내교육과 사외교육, 기타활동으로 이뤄졌다. 사내교육은 KPS역사와 비전, 사업부문별 현황, HR제도와 안전관리 등 총 19개 과정이, 사외교육은 신입사원 마인드셋과 팀프로젝트 교육 등 총 9개 과정이 있다. 올해 사외교육에는 영상 촬영 기법과 Chat GPT 활용 분석에 관한 강의가 기획되어 관심을 모았다.

5일 차 급여제도 강의를 듣기 위해 인재개발원 대강의실을 가득 메운 신입사원들의 열기가 무척 뜨거웠다.

이주호 신입사원은 “복지나 급여제도에 관한 강의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 직장인이란 애무래도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니 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수영 신입사원은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로 4일 차 비전레일과 팀 프로젝트 영상 교육을 꼽았다.

“아무래도 공기업이니까 신입 연수도 정적이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강의들이 굉장히 활기차고 액티비티한 요소가 많아서 편견이 깨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팀 프로젝트를 통해 기차(구슬)가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는 레일을 만들어 보면서 팀원들과의 조직력을 높이는 경험도 참 좋았습니다.”

팀 프로젝트, 솜품으로 한전KPS를 소개하라!

4일 차 팀 프로젝트 강의에서 모바일 영상 편집 앱을 통해 촬영과 편집 기법을 익힌 신입사원들에게 특별한 조별 미션이 발표됐다. 1~2분 길이의 솜품 콘텐츠로 한전KPS를 소개하라는 미션이었다. 영상에 담아낼 키워드는 ‘회사 비전, 정비 기술, 안전, 청렴, 사업(화력, 원자력, 송전, 해외 원전 등), 인재상’ 6가지가 주어졌다. 팀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우수조로 뽑힌 신입사원들에게 교육 가정과 소정의 상품이 지급된다는 달콤한 제안에 팀원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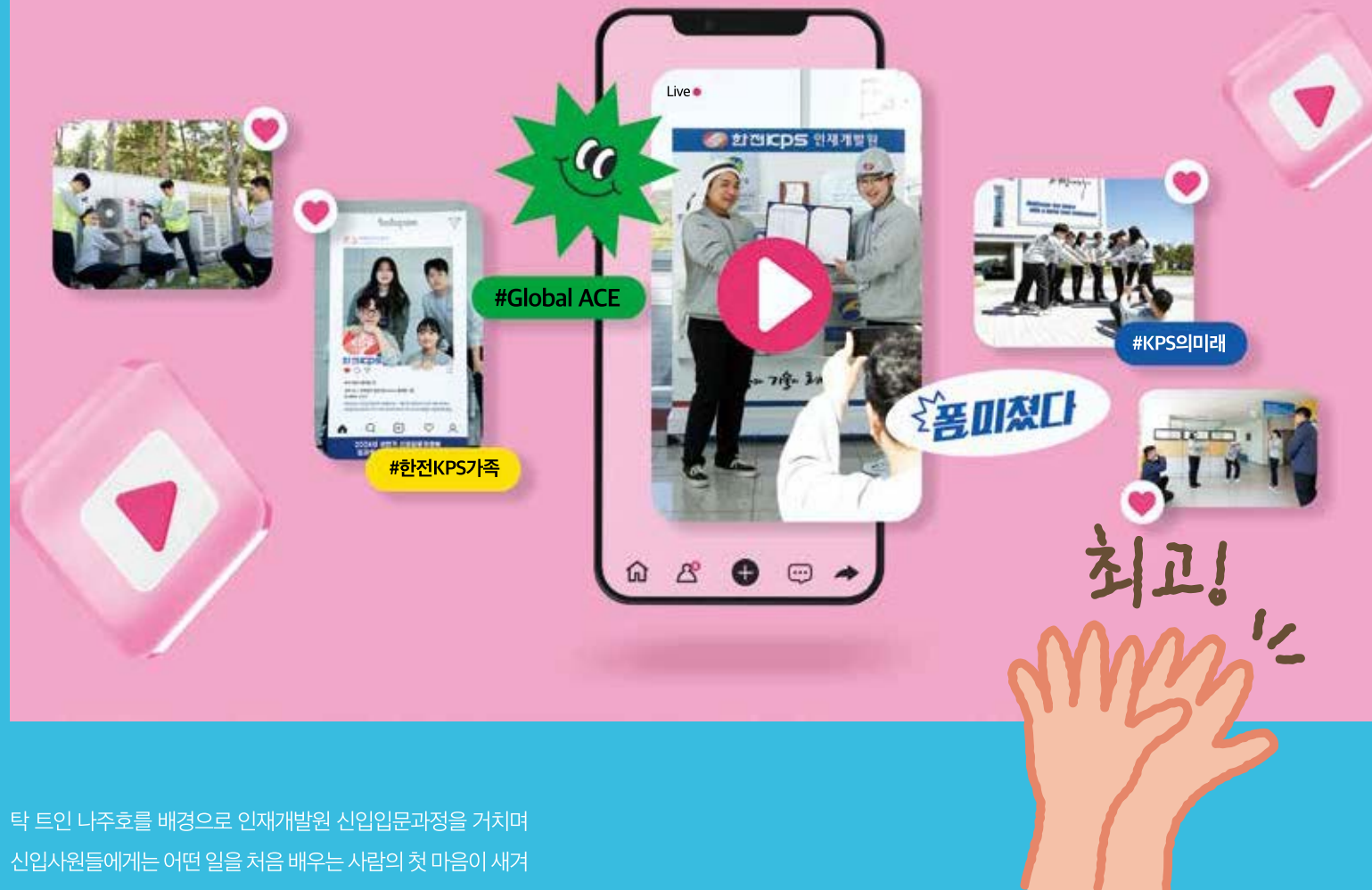
키워드를 선택하고, 어떻게 담아낼지 기획하며 자연스럽게 업무 부담이 이뤄졌다. 주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스토리보드는 전문가 못지않았다.

“레디, 갑시다. 하나, 둘, 셋!”

3조는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서 착안해 6가지 키워드 모두를 캐릭터로 담아내기로 했다. 카메라 촬영을 맡은 박영오 신입사원의 표정이 자못 진지하다.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을 좋아해서 그의 영화를 섭렵했다는 박영오 신입사원은 대학교 때 영화 연출을 공부한 경험이 있다.

10조는 한전KPS 인재상 ‘Global ACE’를 주제로 삼았다. ACE에 담긴 인재상 A(Globally Advanced), C(Customer-oriented), E(Expert)를 각각 영상에서 표현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모았다. 세계 무대에서 원전 수주를 체결하는 장면을 찍기 위해 아랍 왕자로 변신한 신입사원의 등장에 곳곳에서 웃음보가 터져 나왔다. 윤소현 신입사원은 “신입 연수에 와서 약간 긴장된 마음이 있었는데, 팀 프로젝트로 팀원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조금씩 용기가 생겼다”며 “인재개발원에서 교육받았던 것처럼 앞으로 업무 현장에 나가서도 선배님들과 동료분들과 함께 협업을 잘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솜품 콘텐츠+ 한전KPS를 소개하라



탁 트인 나주호를 배경으로 인재개발원 신입입문과정을 거치며 신입사원들에게는 어떤 일을 처음 배우는 사람의 첫 마음이 새겨졌다. 새로운 업무 현장에서 꿈을 이뤄갈 210명의 신입사원들이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아가기를,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미니인터뷰

다 함께 수료 잘하고
업무 현장에서 반갑게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입사원 이지한 반장

Q 신입사원 교육을 마친 소감이 궁금해요.

공기업이고 현장 중심의 회사다 보니 신입사원 교육에서 과연 무엇을 배울지 궁금했는데요. 8일에 걸친 입문과정 교육과 실습이 무척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Q 한전KPS인으로서 목표와 바람을 말씀해 주세요.

신입사원으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선배님들께 잘 배우자는 마음이 가장 큼니다. 목표는 기계 설비의 전문성을 갖추어서 한전KPS 사내 자격제도 레벨3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꿈은 클수록 좋으니까요.(웃음)

Q 신입사원 동료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전국의 엘리트분들이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열심히 오셨을 텐데, 다 함께 수료 잘하고 업무 현장에서 반갑게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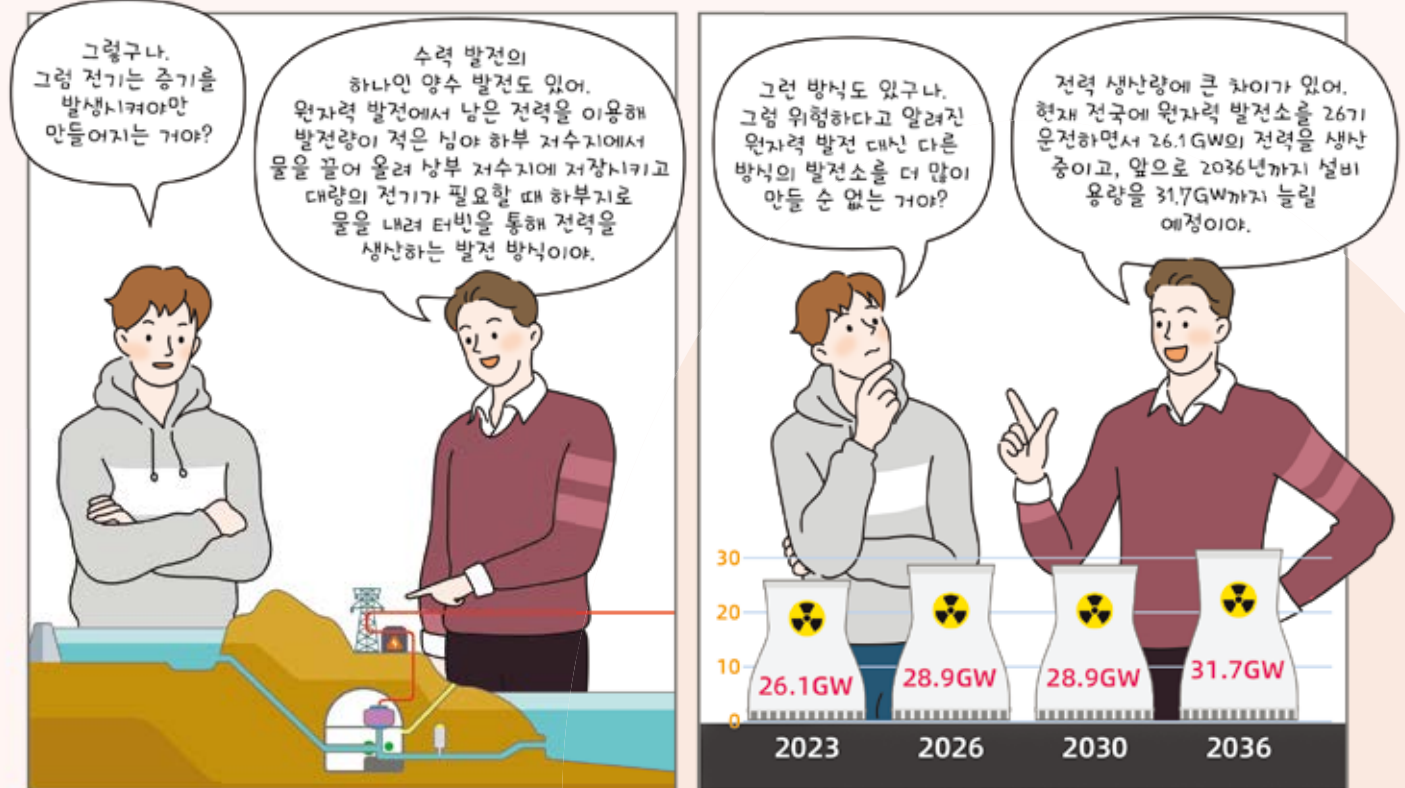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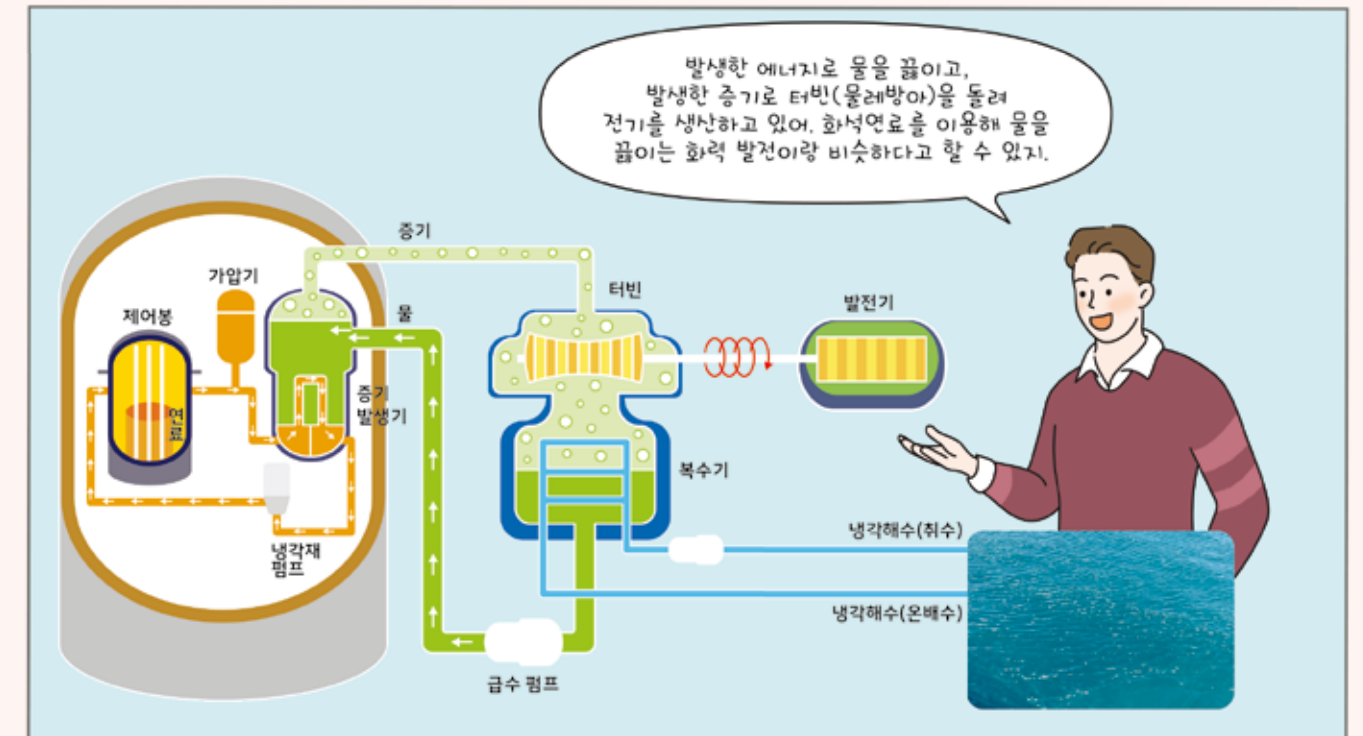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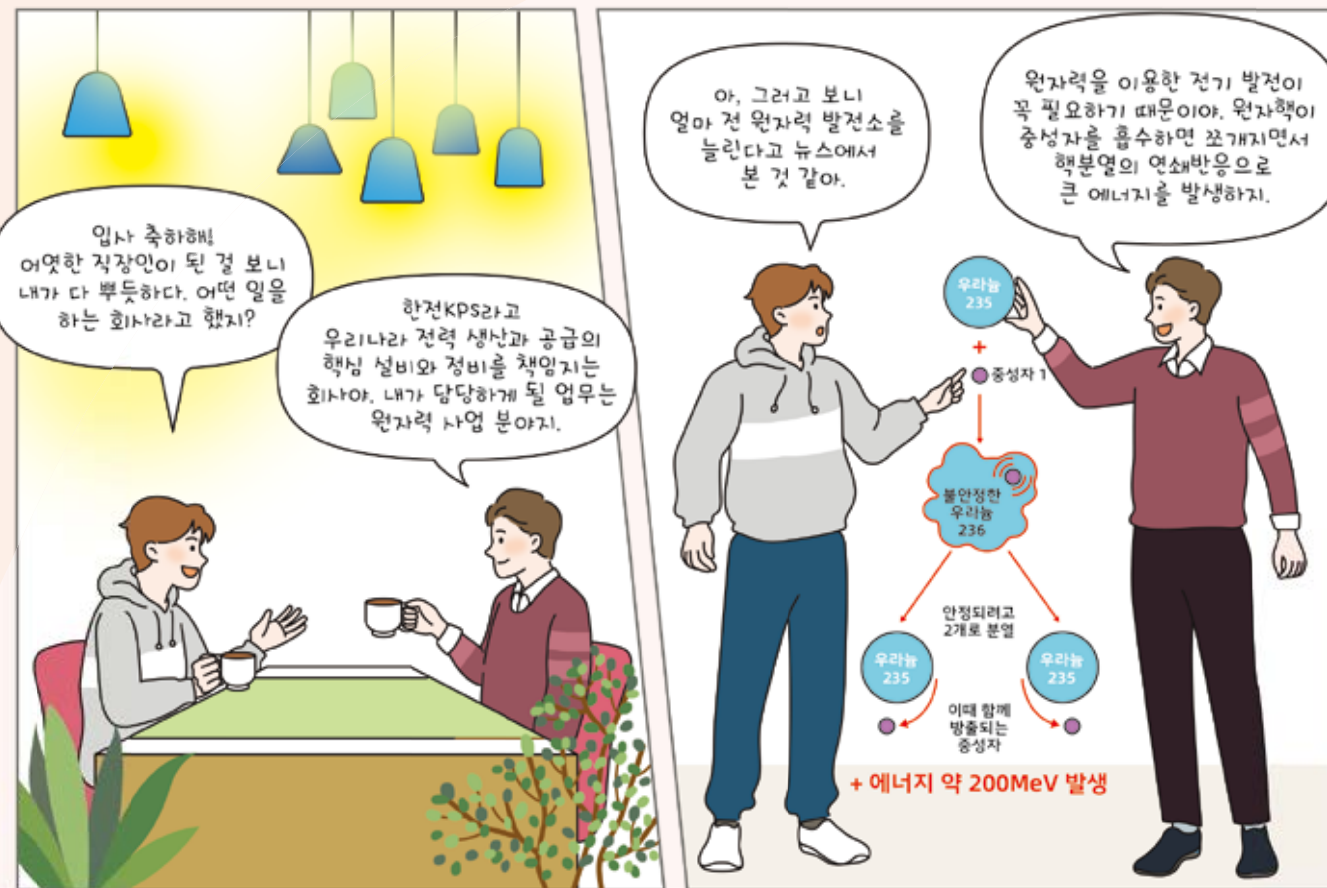
Q 한전KPS 합격 노하우를 전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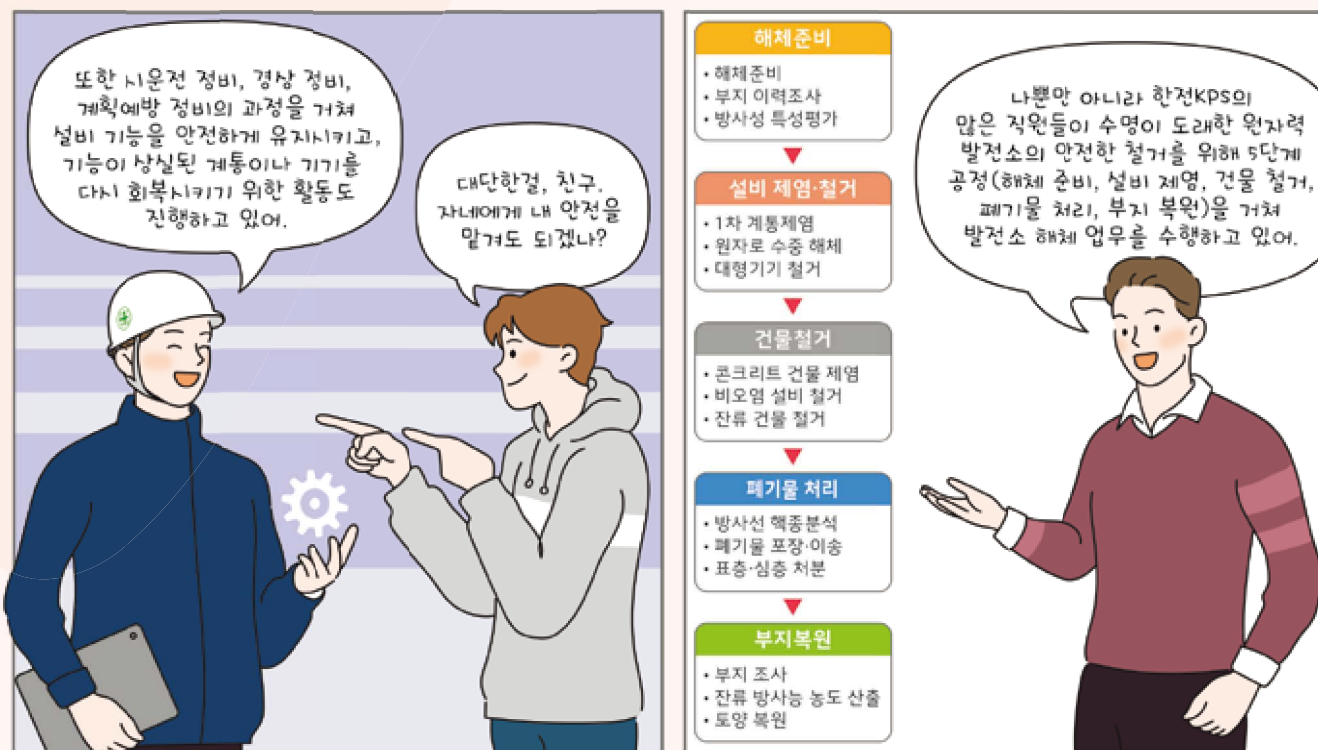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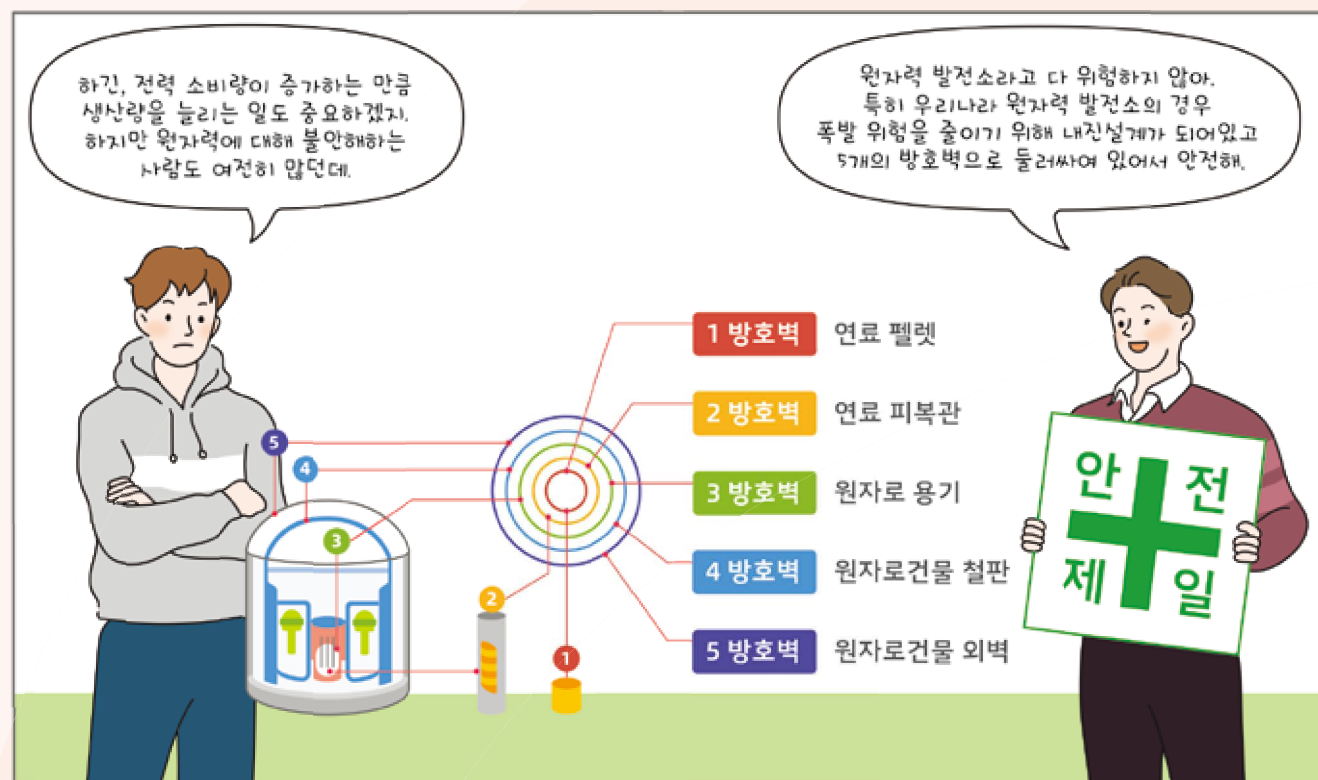
면접관 앞에서 답변할 때 어떻게 해결할지, 왜 이렇게 행동할지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전KPS 정비보조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러한 경험을 통해 안전의식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배웠습니다. 그에 관해 답변했던 것이 합격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안전을 책임지다

지난 5월 국내 최초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의 해체 작업이 시작됐다. 1978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고리1호기는 그동안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크게 기여한 발전소인 만큼 해체 작업에도 많은 이목이 쏠렸다. 특히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해체 작업 역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고 있다. 안정적인 원자력발전 정비와 안전한 해체의 중심에 있는 한전KPS의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글 편집실 그림 유민







꼭 필요한 것만 삽니다 새롭게 등장한 요노 YONO 경제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지속되었던 보복 소비 풍조가 점차 움츠러들고 있다.
그리고 그 빈 자리에 불필요한 구매에는 지갑을 닫고, 꼭 필요한 물건만 사며, 나아가 지속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는 소비 형태 '요노'가 빠르게 채우기 시작했다.

글: 이승연(매일경제신문사 주간지 <시티라이프> 기자)



경기침체에 등장한 트렌드, 요노 소비
올로 경제, 요노 경제를 만나다(YOLO economy, meet the “yo, no” economy.)*
지난 6월 미국 CNN 보도에서 등장한 이 문
장이, 현재의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올로’는 2030세대를
주축으로 퍼진 소비 트렌드였다.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을 외치며 먼 미
래에 대한 준비 대신, 나를 위한 또는 현재의
행복과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 형태가 등장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올로에
대한 열망은 더욱 커져갔는데, 이는 사람들
이 지금 누리는 삶, 서비스 등이 언제든지 제
한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엔데믹 이후에는 여유로운 소비와 경험 등
을 즐기는 ‘보복 소비’ 열풍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고환율·고금리·고물
가, 이른바 ‘3고 현상’이 장기화되며 경제에
대한 인식 또한 점차 바뀌는 추세다. 최근
1~2년간 미국의 2030세대 사이에선 과거
세대보다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소비 성향이
커져갔다. 이들은 대체로 물건의 구매 대신
렌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소비자의 건강
과 환경에 지속 가능한 가치를 고려하는 등
과도한 소비를 지양하고 있다.
글의 시작에 앞서 언급한 CNN 보도를 자세
히 살펴보자. 해당 기사에선 ‘과잉 소비하던
미국 경제의 거품이 꺼지며 ‘Yo, No(야, 안

돼)’ 경제가 되고 있다’며 ‘미국 소비자 지출
이 감소했고, 미국의 고소득 미국인도 월마
트와 같은 할인 소매업체로 눈을 돌리고 있
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새롭게 등
장한 신조어가 바로 ‘요노’이다. 올로와 비슷
한 용어처럼 보이지만, 의미는 사실상 정반
대다. 요노는 ‘이것만 있으면 된다(You Only
Need One)’는 문장의 약자로, ‘불필요한 물
건을 소비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여주는 수
단이 아니’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Nicole Goodkind, 2024.6.4., “YOLO is dying. That could be bad news for the economy” CNN 기사 인용

Z세대에 퍼진 '저소비 신조'

비슷한 시기 한국에서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저소비'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부상했다. '저소비 트렌드'는 특히 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의 젊은 층 사이에서 두드러졌다. 2022년에는 '스스로의 지출을 아끼고 관리하자'는 가치관의 확산과 함께 '무지출 챌린지' '짠테크' '티끌족' 등 자린고비로 대변되는 극단적인 소비 절약이 '도전(챌린지)' 형태로 인기를 끌었다. 그 후 생활 전반적으로 불필요한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최소화한 필수품을 선호하는 등 요노 경제에 대한 개념이 국내외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삶의 형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한다.

현재와 미래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요노 경제가 온 것처럼 말이다.

지난 8월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Z세대 537명을 대상으로 소비 행태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Z세대 10명 중 7명(71.7%)이 '최소한의 소비를 하는 요노를 지향한다'고 답했다. 해당 설문에서 율로를 추구한다는 응답은 25.9%였다. 지난해 조사 결과에서 57.3%가 절약하는 소비, 42.7%가 스스로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소비를 추구한다고 답하며 의견이 나뉘었던 것과 상이한 양상이다.

최근 요노 트렌드를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을 꼽자면 외식 산업 분야다. 국내에서 율로 경제가 확산되었을 때 명품 소비, 파인다이닝, 말김차림(오마카세) 식당 등이 인기였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배달 음식이나 외식 등의 식비를 가장 먼저 줄이기 시작했다. 실제로 농협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부분의 외식 업종에서 2030의 소비 건수가

타연령대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수치를 보였다. 그리고 가성비 좋은 제품들, 간편식 등을 소비하는 성향이 높아지며 유통업체들은 고물가에 대비하는 실속형 상품들을 앞다투어 출시하는 등 최근 관련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요노 소비의 핵심, '나와 우리를 위한'

요노 소비의 이면을 좀 더 살펴보면, 과거 '미니멀리즘'과는 다른 결을 보인다. 요즘 20~30대는 소비를 통해 자신의 성향, 자아를 드러내는 데 익숙한 세대다. 또한 사회적 이슈, 문제의식에도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런 그들이 저소비 기조와 만나면서 소비 트렌드 역시 그 특성에 맞게 재편되었다.

일례로, 해외의 Z세대 사이에서는 해시태그 '#저소비코어 Underconsumption Core'가 한차례 '밈(Meme: 인터넷 유행)'처럼 유행했다. 이들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최소한의 아이템을 사용하며 자신이 가진 물건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SNS에 소개했다. 부모님의 오래된 가방이나 깨끗한 옷을 물려받고,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여러 차례 이용하거나, 또는 치약 튜브나 화장품을 용기 끝까지 쓰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아끼는' 행동을 보여줬다. 이런 '저소비 유행'은 무분별한 'SNS 소비'(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속 인플루언서들의 광고, 상품 추천 등으로 인한 충동구매)에 대응하는 '합'한 수단이 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젊은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다. 물건을 소유하는 대신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것을 찾아 기꺼이 발품을 판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중고시장에 재판매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순환'을 이어간다. 그리고 다방면에서 아낀 돈으로 자신의 취미, 여가생활, 경험 등에 소비해 얻는 '삶의 유희' 또한 놓치지 않는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경제적 자립을 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소비를 통해 미래 가치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물론 이런 요노 트렌드에도 동전의 양면처럼 밝은 면뿐만 아니라 어두운 면 또한 존재한다. 소비의 둔화는 경제침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그에 따라 현재 기업들이 요노 트렌드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앞으로도 초저가 시장, 가성비 시장이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것인지가 주목받고 있다.

삶의 형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한다. 현재의 행복이 중요했던 율로 경제가 어느덧 막을 내리며, 현재와 미래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요노 경제가 온 것처럼 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비 트렌드는 또 다른 변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결국 그 중심이 되는 소비자들은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관과 이에 부합하는 합리적 소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능력이, 그리고 기업은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요노 소비 실천법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 구분하기

중고거래 적극 활용하기

대여 제품 사용하기

갖고 있는 물건은 오래 사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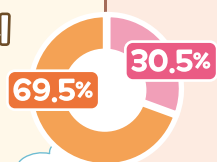
KPS 직원들에게 도착한 다소 엉뚱한 질문에 직원들은 뭐라고 답했을까?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잠깐 휴식하는 시간을 가져 본다.
직장인이자면 고민하게 되는 밸런스 게임에 대한 선택과 이유를 들어본다.

Q1.

가을 OO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올 가을 당신을 더 설레게 하는 것은?

추석, 개천절, 한글날, 국군의 날까지
공휴일 진행시켜 😊
빨간날 많은 달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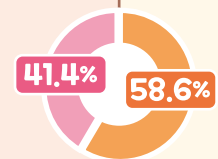
출근하기 딱 좋은 날씨네
타는 여름 후 찾아온
선선한 온도 🌈



Q2.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어진 가을 휴가 🍂 여행 루트를 짜야 한다면?

꽃게, 새우, 전어 🦀
제철 맛은 먹거리 찾아 떠나는
미식 투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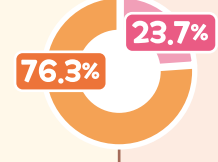
파란 하늘 아래 붉은 단풍과 은빛 억새
제철 풍경 찾아 떠나는
눈 호강 투어 😍



Q3.

근무 중 더 참기 어려운 환경은? 🤔

혹한의 겨울
히터 없이
오들오들 떨며 일하기 🥶



무더운 여름
에어컨 없이
찜통더위 견디며 일하기 🥵



※ 답변이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음료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11월 15일 경)

결실과 풍요의 계절 한껏 무르익은 가을의 낭만을 따라서

가을은 만물이 결실을 맺는 풍요의 계절이다. 가을 앞에서 자연은 가장 풍성하고 수려한 모습으로 옷을 갈아입는다. 붉게 물든 숲과 황금빛 들판, 부드러운 대지와 청명한 하늘까지 총명한 계절을 드리운다. 만추의 낭만을 더욱 깊고 색다르게 즐기는 여행법을 제안한다.

글 김주희 사진. 한국관광공사



절정으로 치달은 가을 길목, 은빛 역새 풍경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 가을이 되면 제주는 섬 전체가 역새로 물든다. 제주의 역새 명소 중 산굼부리에는 오름과 분화의 독특한 지형과 어우러진 역새 군락이 펼쳐진다.

산굼부리는 세계 유일의 평지 분화구를 품고 있다. 매표소에서 정상까지 오르는 길이 대부분 평탄한 데다 넓은 덕에 초보 등산객도 부담 없이 오갈 수 있다. 입구에서 분화구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길은 네 갈래로 나뉜다. 역새 평원을 탐방할 수 있는 ‘역새발길’을 시작으로 ‘돌길’, ‘하늘계단길’, ‘구상나무숲길’이 자리한다. 분화구를 향해 조성된 산책길을 걷다 보면 숨뭉치처럼 뽕앙고 말간 속살을 드러낸 역새밭을 마주하게 된다. 길은 저마다 매력을 품고 있는데, 특히 역새숲 옆으로 돌아가는 돌길은 정겨운 돌과 기이한 암석들이 이채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1시간 이면 네 코스 모두 탐방 가능하니 은빛 물결을 따라 천천히 가을 산책을 즐겨도 좋다.

정상에 자리한 분화구는 깊이 140m, 넓이 650m로 원형의 둘레는 무려 2km에 달하는데, 한라산 백록담보다 큰 규모로 알려져 있다. 분화구에는 식물들이 자라고 있으며 노루와 오소리 등 야생동물이 서식한다. 다채로운 식생이 오밀조밀 모인 신비한 풍경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산굼부리의 역새를 사진으로 잘 담고 싶다면 해가 질 무렵인 오후 4~5시에 머무시길. 해가 서쪽으로 저물 때 역광을 받아 더욱 영롱하게 빛나는 역새의 모습이 장관을 이룬다.



Q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비자림로 768

☎ 064-783-9900



선선한 바람결에 몸을 맡긴 채 깊어지는 가을을 만끽해 보자.

정읍 내장산
가을바람 타고 울긋불긋 단풍 라이딩



야외 활동하기 좋은 계절, 선선한 바람결에 몸을 맡긴 채 깊어지는 가을을 만끽해 보자. 단풍나무 사이로 한바탕 땀 흘리며 라이딩 코스를 완주하면 그 끝에 찾아오는 성취감과 쾌감이 더욱 배가 될 것이다.

국립공원 내장산은 만추의 풍경을 웅골차게 품은 곳이다. 단풍이 온 주변을 울긋불긋 물들이며 수려한 풍경을 자아낸다. 내장산 관광테마파크에서 출발하는 라이딩 코스에는 내장사와 백양사 그리고 단풍 로드로 불리는 추령, 크게 굴곡진 낙타등 코스의 장성호수길 등이 자리한다. 처음 출발해 내장산을 향해 달리면 내장저수지가 나타난다. 햇볕을 머금고 반짝이는 물결을 감상하며 호수길을 달릴 수 있다. 길을 따라 야트막한 언덕에 올라서면 저수지의 탁 트인 전경이 한눈에 담기는데, 곱게 물든 단풍이 물속에 풍덩 빠진 듯한 내장산 반영 풍경이 감탄을 자아낸다. 무엇보다 라이딩의 묘미는 오르막과 내리막일 터. 내장저수지를 지나면 오르막이 시작된다. 정읍시와 순창군의 경계에 위치한 고갯마루 추령 구간인데, 해발고도는 320m에 이른다. 초입부터 가파른 경사를 타고 구불구불 올라간

다. 고지점에서는 시원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유려한 산세와 청명한 하늘, 흰히 내려다보이는 고갯길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할 것. 호젓한 숲의 정취를 품은 장성호도 백미로 손꼽힌다. 단풍나무 사이로 오르락내리락 낙타등을 이룬 수변 길을 내달리는 경험이 가능하다. 차량도 거의 없어 고즈넉한 단풍길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백암산 능선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곰재 구간도 또한 놓치지 말 것.

Q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내장산로 1207(내장산)

☎ 063-538-7875

영주 부석사
문화유산 답사
사찰건축의 극치를 만나다.



유구한 시간을 응축한 문화유산에는 선조들의 숨결과 지혜가 면면히 흐른다. 삶의 지혜와 정교한 기술을 고스란히 간직한 문화유산을 살피는 경험은 완연하게 무르익은 만추와 더없이 잘 어울릴 것이다.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영주는 가을이 되면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게 변신한다. 영주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은 천년고찰 부석사. 일주문에서 천왕문에 이르기까지 500m 남짓한 은행나무길을 따라 황금빛 향연이 이어진다. 부석사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국보와 보물 등 수많은 국가유산을 보유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점이다.



부석사 전각들은 한국전통건축의 고전이라 불릴 만큼 유의미한 가치와 미학을 품고 있다. 수려한 전각들 중에서도 무량수전은 가장 빼어난 목조건축물로 손꼽힌다. 전각 기둥의 중앙 부분을 볼록하게 완성한 배흘림기둥과 정교한 처마 끝 설계를 통해 직선이 아닌 곡선을 그리는 처마 선을 눈여겨볼 것. 무량수전의 지붕이 마치 활짝 펼친 새의 날개처럼 보이도록 한 건축적 장치들이 감흥의 깊이를 더한다. 어느 답사기처럼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한 폭의 수묵화 같은 산세와 탁 트인 전망도 감상해 보자. 무량수전 앞 석등은 통일신라시대를 대표하는 팔각 석등으로 기둥과 받침에서 아름답고 우아한 비례미를 느낄 수 있다.

이 밖에도 경내에는 조사당, 소조여래좌상, 조사당 벽화를 비롯해 3층 석탑, 석조석가여래좌상, 당간지주 등이 있다. 시대를 초월한 장인정신의 산물과 자연의 비경이 어우러진 모습을 바라보노라면 은근한 감동이 밀려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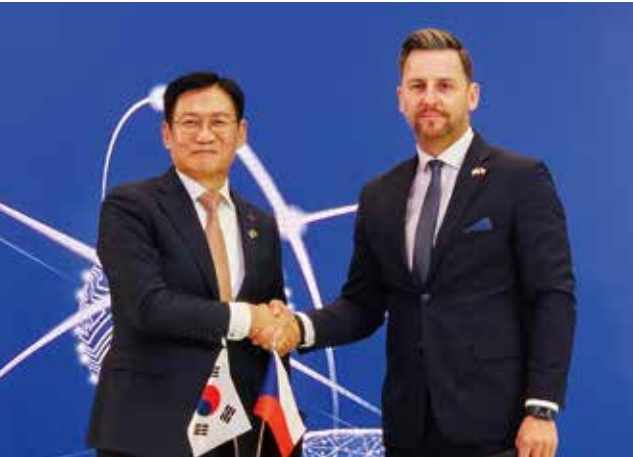
Q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사로 345

☎ 054-633-3464



본사 뉴스

체코 테즈 브세틴 사(社)와 업무협약



우리 회사는 9월 20일(현지 시각) 체코 테즈 브세틴 사(社)와 '신규원전 정비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유럽 지역 파트너로서 체코 원전정비 인프라 및 정비역량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김홍연 사장

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면서 '한-체 원전 전주 기 협력 협약식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협약서에는 체코 신규원전 시운전 정비 및 가동전검사 사업과 현지 정비인력 양성 및 정비 인프라 구축, 체코 또는 주변국 공동사업 발굴 등을 위한 상호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협약을 통해 양사는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을 통한 정비역량 강화와 유럽 내 신규 프로젝트 공동 발굴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테즈 브세틴의 토마스 파블리카(Tomas Pavlica) 대표는 "이번 협약은 체코 신규 원전사업 추진에 시너지가 될 것"이라며 "국제적 발전설비 정비기술을 갖춘 한국 대표 공기업 한전KPS와 협력해 체코 원전정비기술의 완성도를 높ی겠다"고 말했다. 우리 회사는 앞서 올해 2월에도 테즈 브세틴사를 포함한 체코 현지의 주요 원전 전문기업 4개 업체 9명을 초청해 국내 원전 및 정비기술을 체험하는 '정비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해 '팀 코리아'의 기술경쟁력을 알린 바 있다. 김홍연 사장은 "한전KPS의 세계적인 원전 유지보수 정비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지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팀 코리아'가 정부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종계약이 성사되도록 전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정부 원전수출산업화 정책에 발맞춰 지속 가능한 100년 기업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미래탄소중립포럼과 탄소중립 실현 업무협약



우리 회사는 8월 21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사단법인 미래탄소중립포럼과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미래탄소중립포럼은 탄소감축과 에너지정책 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정책세미나, 연구용역, 신재생에너지 구축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에너지 및 환경분야 탄소중립에 대한 상호발전 및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강진경찰서 이동형 CCTV 설치비 지원



우리 회사는 8월 23일 전라남도 강진경찰서와 범죄예방 및 관련 교육·홍보 캠페인 공동추진 등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그 첫 협력사업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이동형 CCTV 설치비용 1,400여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이동형 CCTV 설치비 지원은 농산물 절도와 같은 범죄 및 고정형 CCTV가 없는 도로의 교통안전 등 놓여온 지역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유형의 사건·사고 대응력을 높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28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



우리 회사는 8월 26일부터 닷새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0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에서 현장개선, 안전품질, 사무간접, 제안사례 등 4개 부문에 5개 팀이 참가해 모든 팀이 대통령상에 해당하는 금상 4개, 은상 1개를 수상했다. 매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해 온 우리 회사는 올해 창사 40주년을 맞아 신성장 비전인 '신동력으로 100년,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리더'를 바탕으로 혁신 활동에 매진한 결과 28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초거대 AI 기반 지원사업 수요기관 선정



우리 회사가 정부의 '2024년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추진하는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혁신 서비스를 선도하고 초거대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초거대 AI 기술과 플랫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민 동참 청렴뮤지컬 개최



우리 회사는 9월 5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나주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뮤지컬을 개최했다. 청렴뮤지컬은 직무상 갑질 금지 관련 규정, 청탁금지법 등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청렴교육을 뮤지컬 형식에 접목해 이해도와 공감대를 높였다.

청렴캠페인 일취월청(日就月淸) 실시



우리 회사의 이성규 상임감사를 비롯한 노사 합동 임직원이 명절을 맞아 9월 12일 본사 소재지 인근 나주역과 인근 전통시장에서 나날이 청렴해지자는 의미를 담은 청렴문화 캠페인 일취월청(日就月淸)을 실시했다. 더불어 전국 60여 개 사업소에서도 청렴문화 전파·확산에 나섰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



우리 회사가 '2024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으로 선정됐다.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모범기준을 달성한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인증제에 우리 회사는 사내자격제도와 연계한 역량·수준별 인재육성체계, 합리적 인사관리 등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업소 뉴스

여수사업처 한국남동발전 감사패 수상



여수사업처가 한국표준협회에서 진행한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취득해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 6월 한국표준협회에서 여수발전본부 소내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상반기 사업장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시행한 결과 여수사업처는 안전보건경영체계 등 4개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취득했다. 이에 종합 A등급 달성 및 안전보건 수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월성2사업처 전력산업발전 유공자 정부포상 수상



월성2사업처의 김대용 차장이 대한전기협회가 주최한 '제59회 전기의 날 기념 전력산업발전 유공자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대한전기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서 김대용 차장은 월성 원자력 4호기 발전소 최다 14회 한주기 무고장 운전 달성과 발전소 취약 설비 개선을 통한 안전 사고 예방 등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다.

영흥사업처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에 후원금 전달



영흥사업처는 8월 21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에 8월의 크리스마스 캠페인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전달식에서 영흥사업처는 3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후원금은 인천 지역 미래 세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쓰일 예정이다.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장은 “자라나는 아동들을 위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희망의 산타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영흥사업처의 후원에 감사를 표했다.

동해사업소 지역 독거노인 후원



동해사업소 직원 일동은 추석 명절을 맞아 동해시 지역 독거노인 가정에 수평선 쌀 10kg 20포대를 후원했다. 수평선 쌀은 동해시에서 재배하는 지역 쌀로 이번에 증정한 쌀은 노인종합복지관 U-Care센터에서 관리 중인 20곳의 독거노인 가정에 지원될 예정이다. 동해사업소는 이번 후원을 통해 취약계층과 상생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물론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제주사업소 청년발달장애인 후원



남제주사업소는 '1사업소 1대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모두 함께 SAFE 사업비' 1,000만 원을 후원했다. 올해로 2년 차를 맞은 '모두 함께 SAFE' 사업은 보육기관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 후 자립 중인 도내 청년장애인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주거, 의료, 생활용품 등을 제공해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제주사업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나눔 문화를 확산할 것을 약속했다.

강원충북전력지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표창 수상



강원충북전력지사 한마음봉사단은 9월 10일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으로 열린 '제23회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대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도내 여러 사회복지 단체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후원해 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앞으로도 강원충북전력지사 한마음봉사단은 사회복지단체들과 협업을 통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약자들을 보살피겠다고 밝혔다.

한울2사업처 무정지 연속운전 신기록 달성



한울2사업처는 한울3호기 제18차 계획예방정비를 2024년 7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전 직원이 혼연일체로 무결점 정비와 안전재해 Zero를 완벽히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10주기를 넘어 20주기 무정지 연속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설비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동해사업소 지역환경개선 프로그램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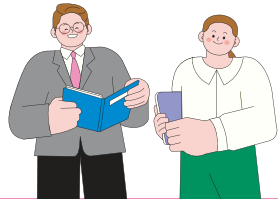
동해사업소는 동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기획사업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지역환경개선 프로그램 '함께하는 즐거움 줍깅데이'에 참여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동해시 천곡동 시내의 환경 정화 활동을 함께하며 상호 간에 협력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평택사업소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



평택사업소는 9월 26일 '어르신 재능나눔을 통한 지역아동 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평택시와 평택서부노인복지관, 안중방정환아동센터가 함께 참여한 이번 협약을 통해 어르신들의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취약계층 아동들의 학습장애 개선과 지역사회 구현에 앞장설 예정이다.

어떻게 읽으셨나요?



노·사·감이 함께 만드는 한전KPS의 청렴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청렴을 위해 힘을 모아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_ 유*범 님

평택사업소의 현장 스토리를 자세하게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업무 수행하시는 모습, 응원하겠습니다.

_ 고*훈 님

KPS 클래스 코너는 직원들이 배움을 통해 소통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배움을 함께하며 관계를 환기를 시키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_ 최*창 님

클스톤을 통해 송변전 설비와 정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전기를 위한 한전KPS의 역할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_ 한*경 님

여행탐방에서 이번 호의 주제인 '재충전'과 잘 어울리는 국내의 멋진 여행지를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_ 박*경 님



지난 호 정답

Q1. 재충전
Q2. 평택사업소

지난 호 당첨자

유*범, 고*훈, 최*창,
한*경, 박*경

※ 당첨되신 분에게는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QUIZ TIME

클스 퀴즈

Quiz 1

한전KPS 내부평가 기준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 중 하나로 함께 나눈다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힌트. ㄷㅂㅅㅈ, p10~13)

Quiz 2

한전KPS인이라면 누구나 전력설비와 정비 교육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힌트. ㅇㅈㅌㅂㅇ, p20~23)

퀴즈 정답 제출 및 모바일 염서



스마트 폰으로 QR코드를 찍고 이동해 이번 호의 퀴즈 정답과 함께 <KPS STORY>를 읽은 소감을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에게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벤트 마감일 12월 5일까지
경품 발송일 2025년 1월 중순

간편하게 익명신고하세요



신분 노출 NO!

케이휘슬이란?



신고자의 익명성을 완벽하게 보장하여, 부패, 비위행위 등 활발한 내부신고를 유도하고자 도입한 익명성 보장시스템



한전KPS 부패행위 신고

신고 즉시 감사실로 접수!
익명, 무기명, 실명으로 자유롭게
신고하세요!

안심신고센터

케이휘슬을 통한 대리신고!
'케이휘슬' 이름으로 접수됩니다!

이런 행위를 신고하세요!

작은 부패, 비리라도 간편하게 익명신고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행위	정보·보안 관련 위반행위	기타 비윤리적 행위 (성비위, 직장내 괴롭힘 등)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행위	부당이득 수수행위
------------------	------------------	--------------------------------	------------------	--------------

처리결과

신고자는 외부위탁기관 케이휘슬[www.kbei.org]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